

2023년 8월 27일(주일) 제1645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전도위원회 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

전도위원회(위원장:차영도 장로)는 오늘 찬양예배 시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흥천도심리교회의 흥동완 담임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면을 참조바라며 성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중에도 놓여준교회와 비전2030지원, 선교사 후원 등으로 힘써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 지원, 후원 상황과 여러분들이 드린 상반기 헌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 강남노회 소속교회 지원 현황>

| 연번 | 교회 | 교역자 | 주소 |
|----|---------|-----|----------------------------|
| 1 | 강남벨렐교회 | 김수민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57, 3층 |
| 2 | 푸른하늘교회 | 정중희 | 서울 강남구 광평로 42길 20 수서교회 |
| 3 | 시온의교회 | 이광형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6길 16, B1 |
| 4 | 큰영광교회 | 윤영옥 | 서울 서초구 방배로60 광찬빌딩 B1 |
| 5 | 별처럼교회 | 진영만 | 서울 금천구 벚꽃로30 골드파크2차상가 B101 |
| 6 | 하늘꿈꾸는교회 | 손재락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89, 4층 |
| 7 | 향유교회 | 고경률 |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 8번지 10-12 |

<전남노회 소속교회 지원 현황>

| 연번 | 교회 | 교역자 | 주소 |
|----|--------|-----|-----------------------------|
| 1 | 광주밀알교회 | 강인구 | 남구 양림로 47 |
| 2 | 홀리교백교회 | 김동건 | 서구 경열로 122 무지개병원 2층 |
| 3 | 정원벨렐교회 | 정창수 | 서구 쌍학로 3-1 |
| 4 | 평안한교회 | 박창현 | 서구 연화로 104번길 8 |
| 5 | 맑은샘교회 | 김창열 | 서구 풍암중앙로 25 모아아파트상가 201 |
| 6 | 포도나무교회 | 김정환 | 서구 상무대로 955번길 37-11 |
| 7 | 세광교회 | 김우건 | 서구 풍암2로 62, 금호타운상가 201-202호 |
| 8 | 새생명교회 | 임근양 | 서구 화운로 23번길 4-7 |
| 9 | 나주서림교회 | 이성현 | 나주시 월정5길 81, 지앤지빌딩 3층 301호 |
| 10 | 하임교회 | 김준경 | 동구 의재로 26 (2층) |

<강원노회 소속교회 지원 현황>

| 연번 | 교회 | 교역자 | 주소 |
|----|--------|-----|------------------------|
| 1 | 신일교회 | 이정웅 |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나래실길 84-1 |
| 2 | 도심리교회 | 홍동완 | 강원도 홍천군 화천면 도심리길196 |
| 3 | 증산제일교회 | 김라정 | 정선군 남면 무릉3로 30 |
| 4 | 방동교회 | 서성복 | 강원도 춘천시 서면 장평길28 |
| 5 | 연하교회 | 오길용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2952-3 |

<교회 직접 지원 놓여준 미자립교회 현황>

| 연번 | 교회 | 교역자 | 주소 |
|----|---------|-----|-----------------------------|
| 1 | 오송제일교회 | 김운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1길 40-7 1층 |
| 2 | 열방공동체교회 | 인유진 | 경기 양평군 양평읍 새만이길 25번길 21호 |
| 3 | 늘푸른교회 | 장의환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89-9 |

<비전2030 후원 현황>

| 연번 | 교회 | 교역자 |
|----|--------------------|----------|
| 1 | 25사단 포병여단 상송포교회 | 김명일 군선교사 |
| 2 | 제2탄약창 한마음군인교회 | 김태식 군선교사 |
| 3 | 25사단 72연대 3대대 승리교회 | 이금순 군선교사 |
| 4 | 28사단 818포병대대 양원교회 | 윤양모 군선교사 |
| 5 | 23사단 진리교회 | 김충기 목사 |

<선교사 후원 현황>
현재 10개국, 14개처, 선교사 25명, 현지인 14명, 기관 4곳

| 연번 | 나라 | 선교사 |
|----|--------------|-----------------|
| 1 | 카자흐스탄 |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 |
| 2 | 러시아 | 김영호·서향정 |
| 3 | 인도 | 조범연·김희정 이상식·김정옥 |
| 4 | 방글라데시 | 이경엽·송은옥 |
| 5 | 인도네시아 | 서광중·이성일 |
| 6 | 케냐 | 김낙형·오정녀 |
| 7 | 말라위 | 김용진·황경혜 |
| 8 | 일본 | 허창범·현미순 |
| 9 | 방글라데시 | 조남혜 바로이 |
| 10 | 서아시아 | 전광혜 |
| 11 | 외국인 노동자 | 김종일·백순미 |
| 12 | 한일연합선교회 | |
| 13 | 말레이시아선교회 | |
| 14 | 코피노선교회 | |
| 15 | 중동선교회 | |
| 16 | 방글라데시 현지인 9명 | |
| 17 | 인도 현지인 4명 | |

2023 상반기(1-6월)
선교헌금, 놓여준100교회 지원, 비전2030 헌금 총액
· 놓여준 100교회 헌금 : 37,070,000원
· 비전2030헌금 : 14,510,000원
· 1가정1선교사 후원헌금 : 47,120,000원

2023 상반기(1-6월)
선교헌금, 놓여준100교회 지원, 비전2030헌금 지출액
· 놓여준100교회 지원 : 54,000,000원
· 비전2030 후원 : 27,600,000원
· 해외선교사 지원 : 148,749,397원
· 기관선교 지원 : 21,400,000원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구민우 최건 허정 이우찬 김준현 권동영 김예준 김종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권경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불안한 인생의 희망

(시 43:1-6)



손달익 위임목사

불안이란 '불편한 일이나 위험이 닥칠 것만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초조한 느낌'을 의미합니다. 불안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근원적 요소입니다. 현실이 완벽하게 만족스러울 수 없고,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삶의 앞길을 가로막지만 인생 문제에는 정답이 없기에 우리 안에는 언제나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속 깊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 종류의 불안 요소를 한 몸에 안고 삶을 살아간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 노예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의 요셉은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매일의 삶이 불안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극복했고 마침내 가정회복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안에는 불안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뿌리, 곧 하나님 신앙이 깊고 든든했습니다.

본문에도 불안한 현실을 이겨나가는 신앙인의 위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1. 불안한 현실의 이유들

시편 43편은 42편과 한 쌍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5절). 절망적인 불안에서 벗어나려 인간힘을 다하는 한 신앙인의 절규를 이 한 구절에서 보게 됩니다. 불안을 이기기 위해 뭉뚱해지는 이 시인은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의 후손으로 제사장 지파의 한 가문이었지만 출애굽 할 때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저항하는 당을 결단하여 격렬하게 저항했다가 하나님께 지진으로 심판 당하고 징계 당했다가 후에 찬양대의 직분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입니다.(대하 20:19)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버리자 예배할 곳도 없어지고 문지기들로서 지켜야 할 성전도 사라졌으며 포로로 잡혀온 그들은 마음 놓고 찬송하지도 못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불안과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상황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책임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을 근원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임을 발견한 고라의 자손들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예배가 중단되며 그들은 포로가 되어버린 이 현실이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의 영적 현실이 만든 필연적 결과임을 알고 불안한 현실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떠난 내 자아가 외롭고 초라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외로울 때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Augustinus는 ‘당신이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영혼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Pascal도 ‘모든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생길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2. 수치의 불안

시인은 그들의 불안이 단순한 현재의 고통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려온 수치스러운 현실임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파괴되었을 때 그 슬픔과 수치를 애타게 고백한 예레미야는 참담한 현실이 부끄럽다고 말합니다.(애 1장) 수치심은 사람들에게 실패한

자기 모습이 노출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때문에 수치를 느끼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모습을 감추려 시도하거나 현실을 피해 가고 합리화하려고 시도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자기 실패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는 참담한 현실과 원수의 억압 앞에 속수무책인 자기 수치를 공개합니다. 이런 정직한 자기 실패의 인정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기도로 이어집니다. 시인은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시 42:2),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시 43:3)라고 간구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회개와 반성으로 새로운 자기 변혁과 발전을 시도해야 합니다.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는 매우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두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반성과 회개로 자기 갱신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안이 평안으로 다가오고 수치가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사 25:8).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평안을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떠난 내 자아가

외롭고 초라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외로울 때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3.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사라졌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주변국들의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은 폐부를 찌르고 현실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절망감으로 삶은 위축되었고 슬픔의 눈물이 주야로 그들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네 그 어디에도 해결책은 없고 오늘은 고통스럽고, 내일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5절)라는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비록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며 그들의 신앙까지 희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길은 하나님 안에 있고 진리이신 예수 안에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일생을 담대하게 사셨던 사도 바울도 사는 동안 많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전 2:3)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기억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현실이 두렵고 몸도 연약했지만 그 현실을 그대로 안고 바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 12:9) ‘머물다’라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장막치고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길이 없고 누구도 내 편이 아니지만 이 연약하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위에 당신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고, 장막을 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갈 것이니라”(히 4:16). 실망스럽고 불안할 때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요 능력이십니다.

불안과 싸웁시다. 불안과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때를 자기 갱신과 변혁의 기회로 삼읍시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여 이겨냅시다. 그리하여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품인 자연속에서 세계선교를 가슴에 품고



홍동완 목사
(도심리교회 담임목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심리교회 담임목사 홍동완입니다.

저는 제주도 한라산 밑자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경상북도 봉화로, 경기도 광주로, 서울로, 호주 시드니로, 다시 서울로, 지금은 강원도 홍천 도심리 한 골짜기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천 리 길 인생 여정이지만, 해바라기 처럼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Th.B. M.Div.를 마치고, 갈릴리세계선교회에서 세계선교를 감당하다가 호주 시드니에 있

는 Emmaus Bible College와 선교 단체인 GLO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꿈꾸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강원도 홍천 두메산골, 도심리라는 마을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도심리교회를 개척하여 영혼과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늘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고 GMC(갈릴리선교공동체)와 UPL(미전도 종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품인 자연 속에서 생명의 먹을거리를 나누는 하늘땅공동체를 세워 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반장 목사님!'으로 부릅니다.



2023 바자를 준비합니다

성도들의 참여가 바자의 첫걸음!



장상국 안수집사
(2023 바자 기획부장)

그 어느 해 보다 숨가쁘게 지내는 한 해인 듯합니다.

한마음축제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도간 그동안의 노고와 아픔이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시간이었음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 마음 속에 있던 교회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바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바자는 실천하는 신앙의 대표적인 모범적인 사례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그 명성에 맞추어 2023년 바자는 새로운 시도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 바자는 처음으로 금, 토요일

에 진행하게 되어서 가족 단위로 많이 참석하여 즐거운 축제를 아이들에게도 마음껏 즐기게 하시고 바자의 의미가 잘 전달되어서 삶에서 배려와 섬김의 가르침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 바자는 변화되는 판매방식의 흐름에 따라 여러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자위원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하여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희망판매장터입니다. 평소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 형태로 제공하고 판매 요청을 하면서 판매 금액을 기부하시는 분이 바자본부에 알려 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매하는 분이 사고자 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물품을 여러분이 요청할 경우 구매 최고가를 제시한 분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진행되었던 사랑의 온도계를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사랑의 마음을 기부금 형태로 참여하는 서울교회의 전통으로 이어온 사랑의 온도계가 이번 바자에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10만 원을 1도로 하여 진행하지만 금액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게 온도계는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2022년부터 진행되었던 미리바자는 바자의 사전 행사로 권사회 주관하에 식품류(불고기, 다양한 반찬류)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자 축제를 알리는 시작입니다.

작년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도 여러분의 참여가 교회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바자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도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김주연 성도(교구)

뜻밖의 인연으로 서울교회를 안 지 일 년도 훨씬 넘어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망설이다... 새신자 교육실을 찾은 첫 주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정미연, 박진주 두 분 권사님들의 살핍과 배려로 오늘 5주 교육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재의 제2과: 하나님과 나, 죄란 무엇입니까?라는 주제에 "죄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상태를 말하며, 인간이 인간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의 상태"라고 전하는 전도사님의 설명은 뜻밖이었고... 또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기를..



강효정 성도(교구)

교회에 처음 참석할 때는 긴장과 의문이 함께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에서 어색함을 느꼈고, 교회 생활에 대한 질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새가족부 5주 과정과 교회에서의 찬양과 말씀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고, 점차 익숙한 소리가 되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있지만, 이러한 의문들이 저에게 새로운 생각과 깨달음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대한 고찰을 하고 이를 통해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에서의 시간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찾아 나아가고 싶습니다.

스데반회 특강



"한국인의 정이 녹아든 한지조형예술로 세계적인 거장 반열에 오르기까지 그것은 투쟁과 역경의 역사였다"

이번 스테반회에서는 서울교회 전교인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옛고서에서 사용된 전통 한지를 소재로 활용하여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조형미술 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룩하시고 세계적인 아티스트 반열에 오르신 정광영 은퇴안수집사님(78)의 특강이 9월 16일(토) 오후 4시 30분, 서울교회 웨민홀에서 열립니다. 집사님께서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시고 국내활동을 하시던 중 보다 넓은 세계에서 작가의 꿈을 실현 하시고자 미국의 명문대학인 필라델피아 미술대학원에 유학을 하시고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서 수많은 작품전시를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쌓으셨습니다.

현재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세계적인 작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역대 한국작가 관람객 중 최다인 10만여 명을 끌어모을 정도로 명성을 높이고 계시며 주요 도시 컬렉터의 관심으로 미술계의 찬사를 한몸에 받으시고 명성을 얻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중 중국 베이징의 탕컨템퍼러리 화랑에서 열리는 대규모 전시를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국내외에서 수많은 특강을 하셨는데 이번 서울교회에서 처음으로 강연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이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스테반회 -

9월 서울가족 토요새벽기도회
 9월 서울가족 토요새벽기도회가 9월 첫 번째 토요일인 9월 2일(토) 오전 6시에 열립니다.
 가을을 맞아 임시를 준비하는 자녀와 온 가족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함으로 위로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에너지 절약 및 청결

계속되는 더위로 주일에 교회 전체 냉방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간혹 부서에서 개별 냉방기를 켜두고 퇴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실 시 부서별 냉방기와 전등은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에너지(자원) 절약을 위해 실천할 사항으로 냉방기 가동 시 출입문 닫기, 엘리베이터 타기보다 계단 걷기, 전기 절약을 위해 전등 하나 끄

기입니다.

또한 부서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8층 식당(만나홀)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였고, 이는 음식물 쓰레기와 부스러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음식물 섭취는 꼭 8층 만나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운동과 기독교 (2) - 3.1운동의 전개



파리 평화회의에서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 대표단



1909년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총회 창립회원



2·8독립선언을 주도한 일본 유학생들-조선청년독립단



김규식



송계백



선우혁



이승훈 장로



신석구 목사

엄혹했던 식민지 시기 대규모의 시위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었던 이들은 주로 해외에 체류 중인 한인들이었다. 대표적인 단체가 상해의 신한청년당과 미주지역의 대한인국민회였다. 이 두 단체는 모두 기독교인들이 주도하는 민족단체였다. 대한인국민회는 1918년 12월 파리평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기로 하고 이승만 등 3인을 참석대표로 뽑았다. 그리고 뉴욕에서 열린 약소민족동맹회 총회에 참석하여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약소민족의 독립을 결의하였다. 신한청년당도 언더우드 선교사의 양아들인 김규식을 민족대표로 삼고 파리에 파견했다.

이러한 해외의 소식이 알려지자 고무된 재일본 유학생들은 독립선언을 추진하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유학생들은 2·8독립선언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송계백을 특사로 삼아 선언문 초안을 국내에 반입했다. 송계백과 신한청년당의 밀사들은 독립운동의 기회를 살피던 천도교 측 인사들을 만났다. 이를 계기로 천도교의 독립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1919년 1월 20일 천도교 간부들은 교주인 손병희에게 독립운동을 허락받고 대중화·일원화·비폭력의 원칙을 세웠다.

기독교 쪽에서도 신한청년당의 선우혁이 이승훈 장로 등과 만나 독립운동을 논의한 후 평양을 둘러싼 서북지역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다. YMCA, 세브란스 병원 등 선교기관의 인사들도 전문 학교의 학생들과 독자적인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도처에서 독립운동이 기획되고 있었던 것이다.

흔히 3.1운동을 ‘세류(細流)가 모여 대하

(大河)를 이루었다’고 말한다. 이는 다양한 계층과 세력이 독자적으로 준비하던 독립운동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대하였기 때문이다. 2월 7일 이승훈은 천도교 측의 연락을 받았다. 민족독립을 위해 힘을 합치자는 제안이었다. 이승훈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자 종교계의 연합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독자적인 운동을 준비하던 학생들도 종교계가 추진 중인 기독교·천도교·불교 연합에 동참하기로 했다. 2월 24일 한용운과 백용성 등 불교계 인사들이 참여하자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민족대연합전선이 만들어졌다.

3월 1일, 서울의 독립선언식이 두 곳에서 열렸다. 하나는 민족대표 33인이 모인 태화관 이었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이 가두시위를 준비하는 탐골공원이었다. 민족대표는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진체포되었고 학생들과 함께 공원에 모인 시민들은 만세시위에 돌입했다. 같은 날 평양, 진남포, 안주, 선천, 의주, 원산 등지에서도 만세시위가 일어나 빠르게 확산되었다. 초기의 시위 지역은 대체로 천도교나 기독교의 교세가 강한 지역이었지만 3월 중순에는 이와 상관없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1919년 6월 작성된 일제 헌병대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기독교·천도교·불교가 연합했고, 전라남도·경상남북도·평안남북도·함경북도는 기독교가 주도하고 천도교가 합류, 강원도·함경남도는 천도교가 주도하고 기독교가 합류하는 모양새로 시위가 진행되었다.

기독교인들의 만세시위 참여는 신앙적인 결단에 따른 것이었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신석구 목사의 고민과 결단의 과정이 이

를 잘 보여준다. 오화영 목사에게 민족대표 제안을 받은 신석구 목사는 두 가지를 고민했다. 첫째, 교역자가 정치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둘째, 교리상 용납하기 어려운 천도교와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신석구 목사는 매일 새벽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다. 일주일째 그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느꼈다. “4천 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네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

신석구 목사에게 3.1운동 참여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아직 독립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만류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지금 당장 독립을 거두려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심으러 가네.” 신석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후손들이 독립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독립을 심는 것이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앙 앙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라’ 하셨으니,
 만일 내가 국가 독립을 위해 죽으면
 나의 친구들 수천 혹은 수백의 마음속에
 민족 독립 정신을 심을 것이다.
 뒤쪽 친구들 마음에 못 심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 3남매 마음에는
 내 아버지가 독립을 위하여 죽었다는
 기억을 끼쳐 주리니
 이만 하해도 만족하다고 생각하겠과.”

식사 제공

- 7교구 김혜식 은퇴전도사, 아들 송상운, 딸 송민선
(고 송기후 은퇴안수집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70인전도대
9월 전도 일정**

| 주일 | 자원자 (1시-2시) | 수요일 | 전도회 (1시-2시) | 토요일 | 선교회 (1시-2시) |
|------|----------------|------|----------------|------|----------------|
| | | | | 9/2 | 빌립 안드레 베드로 |
| 9/3 | 자원자 | 9/6 | 도르가 루디아 비외 | 9/9 | 바울 엘리야 |
| 9/10 | 자원자 마리아 | 9/13 | 한나 | 9/16 | 모세 |
| 9/17 | 자원자 | 9/20 | 에스더 | 9/23 | 바자 |
| 9/24 | 자원자 | 9/27 | 리브가 | | 추석 연휴 |

2023년 가을 서울성경대학 및 열린프로그램

*** 성경대학**

| 강좌 | 요일 및 시간 | 기간 | 강사 / 담당 | 장소 |
|----------|-------------------|---------------|---------|------|
| 에스라·느헤미야 | 화, 오전 10:30-12:00 | 9.5-10.31(8주) | 최종국 전도사 | 602호 |
| 신약의 파노라마 | 금, 오전 10:30-12:00 | 9.8-11.3(8주) | 장석남 목사 | 603호 |

*** 열린 프로그램**

| 강좌 | 요일 및 시간 | 기간 | 강사 / 담당 | 장소 |
|--------|-------------------|-----------------|---------|------|
| 아기학교 | 주일, 오후 2:00-3:10 | 9.10-11.12(10주) | 강남회 전도사 | 706호 |
| 살롬경로대학 | 목, 오전 10:30-13:30 | 9.7-11.9(10주) | 박미라 전도사 | 101호 |



2023 성경암송대회

2023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11(토) 일반부 본선
11.12(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9장-16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2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 일자 | 요일 | 1년 1독 | 확인 |
|-------|----|---------|----|
| 8월28일 | 월 | 겔 5-8 | |
| 8월29일 | 화 | 겔 9-12 | |
| 8월30일 | 수 | 겔 13-16 | |
| 8월31일 | 목 | 겔 17-19 | |
| 9월1일 | 금 | 겔 20-21 | |
| 9월2일 | 토 | 겔 22-23 | |
| 9월3일 | 주일 | 겔 24-27 | |

이름:

| 일자 | 요일 | 1년2독 | 확인 |
|-------|----|------------------|----|
| 8월28일 | 월 | 왕하 17-21 | |
| 8월29일 | 화 | 왕하 22-25, 대상 1-2 | |
| 8월30일 | 수 | 대상 3-6 | |
| 8월31일 | 목 | 대상 7-11 | |
| 9월1일 | 금 | 대상 12-17 | |
| 9월2일 | 토 | 대상 18-25 | |
| 9월3일 | 주일 | 대상 26-29 | |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한여름의 무더위가 가을의 열매로 이어지듯, 아름답고 풍성하고 향기나는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소서.
2. 다시 시작(Restart)하게 하신 서울교회로 하여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성경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소서.
3.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땅 한반도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전 세계에 복음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로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과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의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 전도사
박미라 최종국
- ◇ 준전임전도사
강남회 손주찬
-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장소 |
|-------|---------|-----------|
| 주일 예배 | 1부 예배 | 오전 9시 |
| | 2부 예배 | 오전 11시 |
| | 3부 청년예배 | 오후 2시 |
| | 찬양 예배 | 오후 4시 30분 |
| 수요 예배 | 1부 예배 | 오전 11시 |
| | 2부 예배 | 오후 7시 |
| 새벽기도회 | | 오전 5시 30분 |
| 금요기도회 | | 오후 8시 |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장소 |
|-------|----------------------|------|
| 영아부 |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 403호 |
| 유아부 | 오전 11시 - 12시 10분 | 706호 |
| 유치부 | 오전 11시 - 12시 10분 | 702호 |
| 유년부 | 오전 11시 - 12시 10분 | 701호 |
| 초등부 | 오전 11시 - 12시 10분 | 601호 |
| 중등부 | 오전 9시 - 10시 30분 | 501호 |
| 고등부 | 오전 9시 - 10시 20분 | 101호 |
| 청년부 | 오후 3시 30분 - 5시 | 601호 |
| 신혼가정부 | 오후 12시 30분 - 2시 | 606호 |
| 사랑부 |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 603호 |
| 영여성경부 | 오전 10시 15분 - 11시 | 802호 |
| 소망부 | 오전 10시 10분 - 11시 | 102호 |
| 신앙강좌부 |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 802호 |
| 새가족부 |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 602호 |
| 세례교육부 |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 609호 |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